

따뜻한 복지 넘어 시민 모두 행복 넘치는 김천 건설



관련기사 2·3면

김천시의 올해 예산은 1조 3650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600억원이 늘어났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했다. 지금 일선 지자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입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지방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김천시의 2024 주요시정 운영방향은 경제·일자리·복지·안전 등 민생안정 정책이 최우선이다. 튜닝카·드론 산업육성, 광역철도망 구축, 정주환경 개선, 농업경제 활성화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시정의 역량을 모은다. 따뜻한 복지를 넘어 시민 모두가 행복 넘치는 김천 건설이다.

홍성규 김천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 하고있다.



꼭지가 달렸습니다! 청송사과 fresh!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100년 역사 자랑...경부선 철도 영남관문 김천 飛上

물류 교통 중심도시 김천 시민과 행정 한마음 한뜻 중단 없는 김천 힌찬 도약 스포츠특화도시 집중육성

김천시가 다시한번 함차게 날아오른다. 여의주를 문 청룡 나르사다.

시민들의 지역발전의 간절한 염원과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도시 규모가 커지고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홍성구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 김천의 모습이 변하고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와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중단 없는 김천발전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200여명의 김천시 공무원들이 뚝뚝뚝 더 높게, 더 멀리 비상하는 김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4단계 산업단지 조성, 지역 활력화

김천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산업단지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로 많이 알려져 있다.

때문에 김천시는 지속적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간다.

김천1 일반산업단지 3단계사업은 준공하기도 전에 37개 기업에 100% 분양이 완료됐다.

현재 절반이 넘는 20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추진 중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은 약 124만㎡(38만평)로 올해 공사를 착수, 2027년 준공한다.

3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소상공인들이 한숨 돌리고 재도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창업과 구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김천사랑상품권 700억원 발행과 전통시장 특화 육성 및 환경개선,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스포츠 특화도시 육성

문화, 관광, 스포츠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도시, 스포츠특화도시로 육성한다.

추풍령 테마파크, 사평대사 모험의 나라, 전통한옥촌과 숲속 야영장, 숲체험 등 김천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

장애인전용 국민체육센터와 어울림마당센터(제2스포츠타운) 건립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김천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과 김천상무 프로축구단의 연고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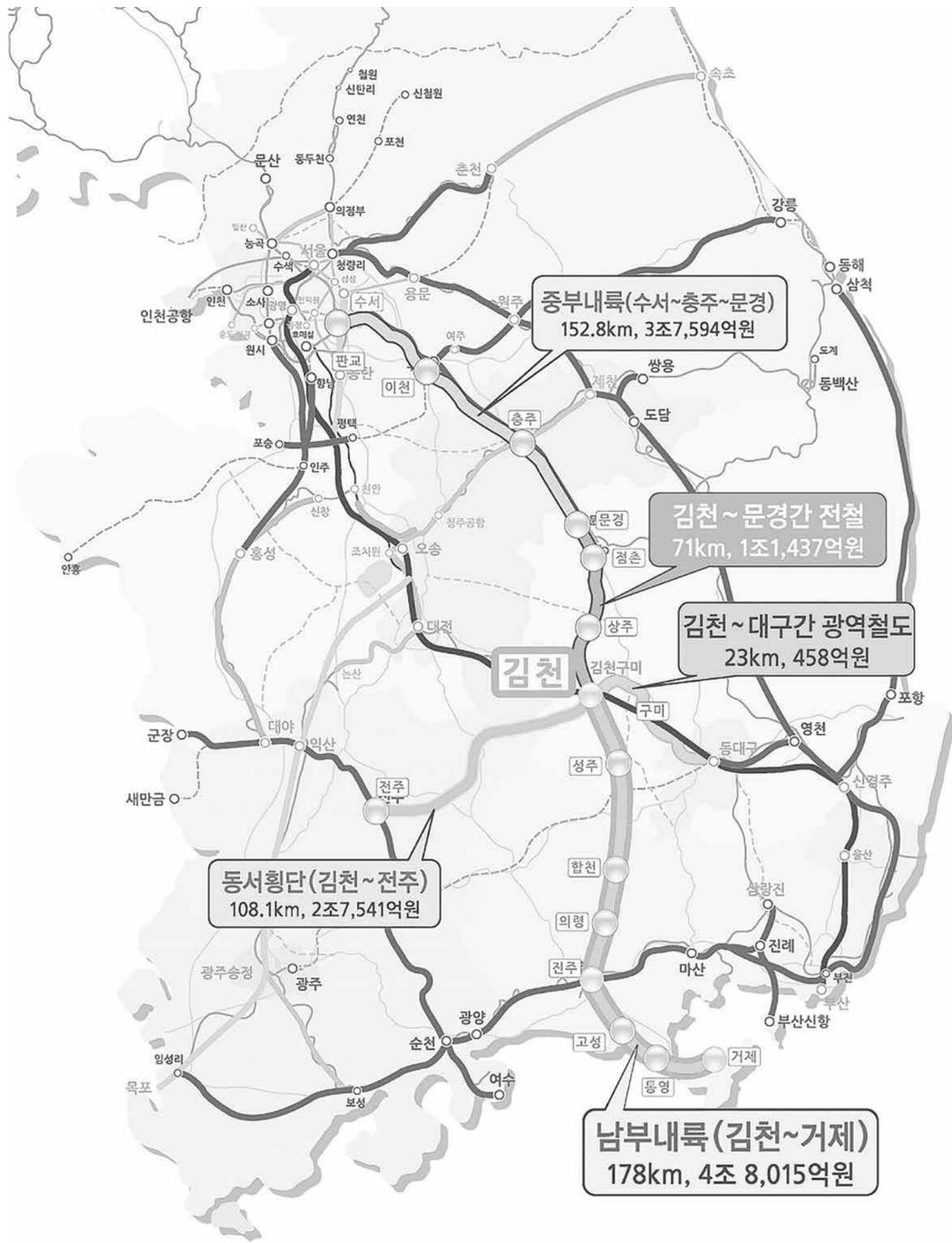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인다.

시는 일찌감치 스포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인식, 지역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써 스포츠 사업에 전력투구했다.

시의 이런 노력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제19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07년 스포츠산업대상 '지자체 부문'이 신설된 이래 2011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김천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평대사공원 미디어아트,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 등 새로운 관광 유행 수요에 걸맞은 특색있고, 차별화



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김천에 머무르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전통한옥촌, 숲속 야영장, 숲체험 등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걸맞은 휴양시설을 확충한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즐길거리를 강화,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로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든다.

제2스포츠타운과 야구장 건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상무 프로축구단,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을 활성화시키고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50여개의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한다.

스포츠 특화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2025년 경북도민체육대회 유치로 경북장애인체전, 경북생활체육대회, 경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까지 열려, 관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을 비롯한 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계층별 맞춤형 복지도시

김천시는 복지재단을 설립, '계층별 맞춤형 복지도시'를 지향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천복지재단 운영 활성화로 긴급복지 지원과 위기가구 발굴에 힘쓴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도 구축한다.

장애인 회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통합보건의료, 맘 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고위험 임신부의 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등으로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부부를 지원한다.

아이를 낳으면 원스톱으로 부모급여,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첫 만남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한다.

산모·아기 돌봄 지원사업의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

어르신들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고독사 예방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6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2024 통합조사, 관리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4개 사업 76300여 명 대상자 중 보장급여와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수시 신규 신청 건에 대해 실시한다.

각 사업의 수급자와 동일 가구내 가구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보장 자격 관리를 위한 통합조사관리 계획에 따라, 신청 조사와 월별, 반기별로 확인 조사를 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25개 공공기관의 사회보험, 국세, 지방세 등 공적 자료와 140여 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대출

금액 등 금융자료를 적용하게 된다.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자체 업무연찬을 실시, 정확하고 효율적인 확인 조사와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물류교통도시 조성

김천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부선 철도의 영남관문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물류와 교통이 모이는 경상도 서북부지역의 중심이었다.

구미에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인구가 유출, 농업외에 마땅한 대체산업 없이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늦어졌다.

1990년대 이후로는 잔란했던 과거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그저그런 지방소도시로 여겨졌다.

하지만 KTX 철도가 개설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경북혁신도시 이전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 입주는 김천시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이 됐다.

지난해 12월 튜닝안전기술원과 드론자격센터가 연달아 준공됐다.

그동안 대표산업의 부재로 침체를 겪고 있던 김천시는 튜닝안전기술원과 드론자격센터라는 전략산업의 새로운 전초기지를 마련했다.

다시 한번 지역의 중심으로 가는 출발점에 서게 됐다.

시는 튜닝카·드론 산업, 스마트 물류센터,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모빌리티 튜닝산업지원센터, 스마트 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으로 미래첨단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운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인 편리한 교통망 구축에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김천-거제, 김천-문경, 김천-전주 간 철도구축 사업과 대구광역전철망 김천연장을 착실히 추진, 고속철도가 정착하게 될 김천역사 신축 및 역사권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철도특구 지정과 폐선 구간을 활용한 철도관련 산업 유치 방안을 연구,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철도특별시도 도약한다.

지역균형 발전, 농업경제 활성화

김천시는 지역간,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원도심 지역은 각 지구별 도시재생사업과 특화사업 추진으로 원도심의 발전방향과 콘텐츠를 강화, 지역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든다.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육원 설립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

청소년 테마파크, 국민체육센터 건립, 복합혁신센터 운영활성화 등을 통해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돈이 되는 농업,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한 시책 사업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최첨단 농법, 새로운 작물과 품종의 시범사업, 지역특화식품 개발, 수출관로 개척과 온라인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견인해 나간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등의 지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농촌폐교를 활용한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공간을 조성, 청년 농업인과 감소농 육성으로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간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 1천500만 달러(약 200억 원)를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농가소득 향상을 꾀한다.

정부, 경북도, 김천시, 민간투자자가 함께 투자 펀드를 결성,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복합센터'를 경북고속도로 김천휴게소 인근에 조성, 서남부권 농식품 광역유통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뿐 아니다.

상습침수지구 하천환경 및 배수 개선사업과 급경사지 정비사업, 재난취약지구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등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하천변 산책로 출입 차단시설 설치,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등으로 각종 사고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안심 귀가거리 조성, 생활안전 CCTV 설치,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사회적 재난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주요 현안사업 '광복 행보'

홍성구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다.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따른 경북도이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홍 권한대행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중부내륙철도(수서-김천), 대구권 광역철도와 함께 십자축 철도망을 구성하는 동서횡단 철도(전주-김천)를 연장하는 김천-통합신공항-의성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속철도 노선 증설에 따라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신형 간선형 전기동차(EMU) 차량 도입 수요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대구도 정비기지장을 지리·경제적 강점을 가진 김천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준공을 앞둔 통합보건의료 건립을 위한 추가 사업비 지원, 지난해 12월 개소한 드론 자격센터와 연계해 무인기(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을 견인할 K-드론지원센터 조성 사업비 지원, 국산 목재를 활용한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목조건축 실연 사업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김천은 무인기(드론), 튜닝카 등 미래 산업을 차근차근 현실화하고 십자축 철도망이라는 강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야심찬 지원을 약속했다.

이경호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명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	053-267-5000	광고	053-267-0800	문화	053-253-0065
부사장	053-254-0000	기획조정	053-267-0600	사회	053-253-0060	지행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	053-267-0700	정경	053-253-0068	편집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도의원들 2024 새해 첫 임시회 바쁘다 바빠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2024 업무보고 청취



이선희 의원

김길수 의원
(국민의힘, 구미4)

남영숙 의원
(상주, 국)

강만수 의원
(성주, 국)



경북도의원들의 얼굴에 생기가 넘친다. 경북도의회가 2024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탓이다. 도의원들은 상임위별로 현안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행복위원회 업무보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립)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복지건강국안정행정실의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도의원(비례)은 인재개발원 이전 후 현재 도청신도시에 숙박시설이 부족, 신규임용자교육이나 중견리더교육 등 인원이 많은 교육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도의원(비례)은 인재개발원 이전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경북도립대의 유휴시설로 이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인재개발원의 성공적인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태립 위원장(의성)은 타시도와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매년 교류하는 곳이 같고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타시도에서 우수한 정책이 있으면 새로운 곳과 교류를 추진, 그러한 정책들이 경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벤처마킹하길 바란다고 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김희수 도의원(포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어 영세 사업자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예를 들었다.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전략과 매뉴얼을 만드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구 도의원(포항)은 고향사랑기부제가 홍보의 부족으로 시군별로 모금액의 차이가 크고 기부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올 연말에는 경북의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당부했다.

황명강 도의원(비례)은 현재 도청 전입은 권역별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북부권(39%)에 편중돼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원율이 떨어지는 남부권(11%)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했다.

박선하 도의원(비례)은 장애인복지과와 같은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빠른 승진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도의원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은 타시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해왔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김길수 도의원(구미)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의 여 의료기기가 노후화 되어서 주 수혜자인 의료취약지역,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렵고 그에 따른 사후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진료 후 사후관리까지 가능할 정도의 인

프라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선희 경북도의원

이선희 도의원(청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44회 임시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전통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 지역문화의 보존과 발전은 물론 다양성 증진을 통해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한 몫한다.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으로서 의미가 큰 조례안이기도 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과 세부 지원사업, 사무 위탁,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창작자인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적 가치를 만들고 상업화를 주도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하고 있다.

경북도 로컬크리에이터의 창업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와 달리 로컬크

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정책추진과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발의가 더욱 큰 의미를 갖는 배경이다.

조례안으로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지역주민들도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선희 도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업 활동 등에 힘입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도시에 새로운 활력이 불고 있는 만큼 본 조례를 통해 도내 가치창업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북도의회 의원 발의 안건 중 제1호로 상정된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전국 최초 조례로 기록된다.

■남영숙 경북도의원

남영숙 도의원(상주,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최근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경북 도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와 예방 방안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은둔형 청소년 현황 등의 파악으로 내실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은둔형 청소년 상담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예방·지원사업과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 지원대상을 명시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남영숙 도의원은 "은둔을 시작하는 시기가 10대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이 성인 연령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은둔형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만수 경북도의원

강만수 도의원(성주,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 도의원은 도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

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보건 의료 수요 충족을 통한 도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도내 의료취약지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15개 시군, 분만취약지는 A등급 7개군, B등급 1개 시, C등급 10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시군,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 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보건 의료분야에서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는 "도내 각 시군의 의료인프라는 천차만별로 도민의 건강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지방시대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관점에서 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 반드시 보완해 나가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도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본적인 보건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경북도의원

김길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구미)은 경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지난 2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도의원은 경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가 없어 형식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조례 개정에서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법정조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구지만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전담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수 도의원은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조정, 교육·역량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경북도 복지안전망 강화와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2일 경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경주 감포공설시장 노후 전선 정비 완료 ...

경주 감포공설시장 51곳 점포의 노후 된 전기 시설 정비사업이 완료됐다. 사업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공모에 감포공설시

장이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점포 및 공용부분 노후 전선 등의 전기시설을 보수했다.

화재 발생원인 중 절반 이상이 누전이나 합선 인 점을 고려해 노후 된 간판 전선, 분전반 및 불량 콘센트, 옥내 배선 등을 교체했다. 시는 전통시장 화재 원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전기시설을 교체·정비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한 경계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주시, 설 맞이 특별 교통안정 대책 마련

설명절 전 3일간 전통시장 인근 교통지도 '인력' 배치

경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과 귀성객들에게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 교통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특별 교통대책으로 △공영주차장 전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인근 교통지도 인력배치 △특별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연휴기간 4일 동안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24시간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한다. 무료개방은 노상 주차장 17곳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24곳으로 총 주차면수는 1770면이다.

■전통시장 차량혼잡 대비

전통시장 2곳 주변도로도 2월 2일부터 12일까지(9~17시)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

구간을 살펴보면 성동시장은 바디프랜드 경주직영점에서 메리츠화재까지 한쪽(시장) 방향 250m를, 중앙시장은 중앙네거리에서 GS25 원효점까지 한쪽(시장) 방향 300m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정류장이나 소방시설, 횡단보도 주변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

7~9일까지 새천년병원 앞 및 중앙시장네거리에서 교통지도 인력을 배치, 전통시장 인근 차량

혼잡에 대비한다. 연휴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사고 보고·조치, 교통상황 및 기상정보를 수집해 전파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 설 연휴는 대체 공

휴일이 추가되면서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처리시설 점검

경주시가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물 공급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일까지 정수처리 시설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정수장 6곳, 취수시설 9곳, 도수관 7.4km, 가압장 등 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기계·전기·자동제어·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서 중대한 결함 및 손상 발견 시 긴급보수 조치와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시는 추후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도를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설 연휴기간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반을 편성하고 신속히 대응한다.

장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수자원 고갈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덕동댐 저수율 88%와 형상강 원수 취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점검으로 정수처리시설 안전성 확보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를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구직자 큰 호응

'2024년 사업설명회' 가져 직업교육훈련 등 사업안내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30일 여성 행복드림센터 2층에서 구직을 원하는 경력단

절 여성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설명회에는 행복향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순화아카데미, 경주어르신종합돌봄센터, 디지털배움터, 짬짬 등 직업교육훈련 전문강사 5명과 여성 구직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새일센터 주요 사업인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후 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올해 운영 예정인 직업교육훈련 키즈클래스 스타트업, 로컬 크리에이터 등 6개 과정의 교육 과정별 강사들이 참석해 교육 과정의 핵심내용과 취업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살린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지역의 노인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적합한 실무과정들이 개설돼 여성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새일센터에서 알선 취업한 여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새일여성인턴제 프로그램도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인턴채용 기업체에 3개월간 월 80만원씩 지원되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체에 고용장려금 80만원과 인턴 참여자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이 지원된다.

참석자들은 사업설명회 종료 후 100여 건의 프로그램 신청 건수가 있었다.

"출퇴근 시간 대폭 줄어든다"

문산산단~부영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연내 개통...

경주 문산산업단지외 동부영아파트를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이달 12일 착공에 들어갔다.

시는 사업비 70억원을 투입, 문산산업단지~부영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도로는 2022년 5월 완공한 홍골교의 진출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홍골교(147m)를 제외한 연장 370m, 폭 18m 왕복 4차선 도로다.

이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전용 인도도 함께 조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문산산단과 부영아파트를 바로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개통하면 직장인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간 외동읍 일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과 생활인프라 개선은 물론,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용한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주 2024 사랑의 온도탑 127도 달성

경주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 127도를 달성,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경주시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1

일 경주문화관1918(옛 경주역) 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종료를 알리고 기부자의 뜻을 새기기 위해 사랑의 온도탑 폐

막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이철우 시의회 의장, 유관기관장,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기부자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개인에게 감사패와 표창패를 수여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홍준표 “총선 앞두고 사이버 여론조사 업체 기승…철폐 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31일 “총선 앞두고 사이버 여론조사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력 후보자에

게 연락해 돈 3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여론조사를 해 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이를 그 후보가 거절하니 상대 후보에게 돈을 받았는지 일방적으로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여론과는 전혀 다르

게 조사를 하고 이를 지역 토착 언론과 방송에 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선거 브로커에 놀아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며 “선거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선거 브로커, 사이버 여론조사 업체는 이제 철폐될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기초학력 전담 교사 57명 배치…

기초학력지도 다양한형태 협력 수업 모델 창출 지원

경북교육청은 3월1일자로 도내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담 교사 57명을 정규 교원으로 배치한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목적으로 정규교사를 학교에 추가 배치해 수업 내에서 담임교사와 협력해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의 학습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담 교사 57명 중 44명은 공모를 통해 1,2학년 학급 수가 6학급 이상인 학교 중에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 많은 44교에 배치된다.

3월부터 1년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또는 수학 수업에 주당 16-20시간 '함께·따로 공부방'을 운영해 지도한다.

'함께·따로 공부방'은 교실 내에서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집중 지도가 필요

한 경우, 별도 교실에서 개별 학습을 통해 학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학습지원 방식이다.

전담교사 57명 중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에 배치된 13명의 지정형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지역 내 학교를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 센터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3년 전부터 운영한 이 제도가 참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많이 올려주고, 특히 일부 학생들은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수준에서 짧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등의 효과로 학생과 학부모는 85%, 담임교사는 90% 이상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맞춤형 지도와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연수를 하고, 기초학력 심화 과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등 지도 효과를 더욱 높여간다는 방침



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정

규 교원으로 지속해 운영되면서 높은 만족도와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초학력 지도를 위

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수업 모델이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문체부, 성주군 2024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시골의정취 흠뻑 느끼는 야간관광 프로그램 선봬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성주 한계마을 노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성주·공주·여수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모를 실시, 이들 3개 도시를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2022년 선정된 인천, 통

영, 2023년 선정된 대전, 부산, 강릉, 전주, 진주를 포함해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문체부는 밤에만 경험할 수 있는 여행콘텐츠를 제공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선정·육성,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 시간 연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선정 지자체에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광공사와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특화된 홍보마케팅, 야간관광 콘텐츠와 야간경관 조성, 관광 여건 개선 등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컨설팅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에는 4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공주·여수·성주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만의 야간관광 매력을 보여줘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서는 소도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원도심과 활성화되지 않은 관광자원을 활용

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인문학, 예술 강좌 등의 프로그램으로 야간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했다.

빛 공해가 적은 지역의 장점을 살려 어둠을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기획했다.

성주는 시골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참외밭 노을과 성밖 숲 야경을 보며 신나게 달리는 '성밖숲 나이트 레이스', 바비큐와 야간 참외 따기 체험을 즐기는 '참외농장 나이트 팝아트', 한계마을 저녁 산책과 초가집 숙박 등이다. '가야 고분 야밤 탐사대', '별이 빛나는 캠핑' 등 어둠을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도 마련한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문체부는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대한민국의 야간관광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특화 사업모델을 창출해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야간관광 브랜드(BI) '대한민국 밤 반곡곡'을 통해 전국 명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도재훈 기자

뉴지스탁,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뉴지랭크 특허받은 기술이용 주식 종목 퀀트 분석 서비스

뉴지랭크 특허받은 기술이용 주식 종목 퀀트 분석 서비스

DGB금융그룹 계열사이자 핀테크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뉴지스탁은 자사 주력 서비스인 뉴지랭크 리뉴얼 버전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2011년 출시된 뉴지랭크는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해 주식 종목을 퀀트 분석하는 서비스다.

출시된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어온 뉴지랭크는 10개 이상의 금융사와 제휴 중이며 10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리뉴얼을 통해 투자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며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기능은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진단하고 최적화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한다. 리뉴얼 작업을 진행한 노시형 매니저는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심도 있는 분석과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뉴지랭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분민만의 투자 노하우를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뉴지스탁 문호준 대표는 “뉴지랭크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선별 제공하기 위해 10년간의 노하우를 집약시켰다”며 “시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투자 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뉴지스탁은 지난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APAC 고성장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으며 포브스코리아가 선정한 2023 대한민국 핀테크 50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설 연휴 오염물질 배출, 꿈도 꾸지마세요”...경북도, 특별감시

경북도 1~15일까지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단계별 감시

경북도가 1-15일까지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단계별 특별감시를 벌인다.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악용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가능성이 높은 상수원 상류 지역,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폐수배출업소 등의 취약지역

을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한다.

1단계로 설 연휴 전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2274곳을 대상으로 협조문을 발송, 자율적인 사업장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등 사전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없이 128 또는 110)를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구축한다.

낙동강 중상류지역 주요 하천과 지천, 공단

배수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오염 행위 감시 순찰에 총 84개 조 124명을 투입해 환경 사고를 예방한다.

3단계로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연휴 기간 중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환경관리 취약 업체와 영세업체 40곳에 대해 환경기술인협의회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한다. 김성용 기자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DAEGU 대구광역시



영덕군-해남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훈훈'

영덕군이 자매도시 해남군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진행해 귀감이 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와 간부 공무원 10명은 31일 NH농협은행 영덕군청출장소를 방문해 고향사

람기부금 150만 원을 해남군에 기부했다. 1일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해남군청에서 상호 기부 기탁식을 열어 영덕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두 지역의 상생협력과 교류를 위해 작년에 이어 해남군과 상호 기부하게 되어 기쁘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의 뜻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봉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대응

봉화읍 문단리 양돈농장 인근지역 멧돼지 폐사체 ASF 바이러스 검출 비상

봉화군은 지난 25일 봉화읍 문단리 농경지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양돈농장으

로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은 문단리에 위치한 7200두 사유규모의 D농장과 1.2km, 1천 800두 사유규모의 S농장과 1.8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역 양돈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상황을 즉시 전파, 인근 야산

출입금지,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축주에 대한 방역관리수칙을 SNS를 통해 교육했다. 발견지점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방역지역으로 지정해 군 방역차량과 축협공방반 방역차량을 동원해 농장입구부터 발견지점 인근 도로변까지 집중소독을 하고 있다. 군은 농장출입 금지와 차량과 사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홍보 현수막 40매를 읍면 현수막

걸이대와 농장입구에 걸었다. 보유중인 생석회 10톤, 소독약품 500리터, 휴대용 살균소독제 200통, 야생동물 기피제 500kg을 긴급 배부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2022년 12월 이후 석포면을 시작으로 최근 봉화읍까지 10개 전 읍면에서 75건의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양돈농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매

일 농장 내외부 소독, 손 세척, 장화갈이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31일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19년 양돈농장에서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 경북 15개 시군에서 40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44개 시군구에서 3578건이 검출됐다. 전상기 기자

영양군, 쫄쫄 겨울축제 넘어 산나물 축제 대박 터뜨린다

영양군 '공격형' 홍보 관광객입맛 사로잡아 각종축제로 지역경기 활력 불어 넣는 고장



영양군의 공격형 홍보가 관광객을 입맛을 사로잡는다. 각종 축제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셈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양 쫄쫄 겨울축제와 조만간 열리는 산나물 축제다. 두메산골에 핀 산나물은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막걸리도 출시했다. 산나물과 막걸리는 찰떡궁합이다.

올겨울, 겨울다운 축제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며 성공적인 시작을 장식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쫄쫄 열었던 반변천이 녹기 시작하고 겨우내 숨어있던 생명이 싹틔기 시작하면서 영양은 녹색으로 물든다. 3월이 되면 향긋하고 씹사름한 맛이 매력적인 어수리 나물이 가장 먼저 찾아오고 4월에는 섬유질·인·칼슘·철분·비타민(B1·B2·C)과 사포닌이 풍부해 당뇨병·신장병·위장병에 좋은 두릅을 만날 수 있다. 봄이 절정에 이르는 5월이 되면 일일산청정 지역에서 자란 산나물들이 쏟아진다. 봄향기를 가득 머금은 곰취·취나물·참나물·산마늘고사리는 찜채소로 먹어도 좋고 따로 무쳐 먹어도 좋다. 이 산나물들을 만날 수 있는 '영양 산나물 축제'가 5월 열린다. 2005년부터 시작된 경북을 대표하는 영양 산나물 축제는 지난해 먹거리 장터를 확대했다. '조지훈예술제' 및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연계해 전년 대비 20% 증가한 1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산나물 장터와 고기굽터에서 약 5억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매년 신선한 산나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산나물 장터, 자연에서 직접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축하무대 등 각종 팀 행사

■영양 쫄쫄 겨울축제 대박 지난 5·28일까지 영양군 현리 빙상장(영양읍 현리 670번지 일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제1회 영양 쫄쫄 겨울축제'는 4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는 건강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재미까지 제공해 왔다. 올해는 '착한가격 산나물&고기굽터' 도입, 주차장 확대, 안전통로 확보 등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에 최선을 다한다.

■막걸리 캐리어 출시 영양군은 로컬푸드직매장 홍보 강화를 위해 영양막걸리 캐리어를 제작 출시한다. 2020년 7월 개장한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은 출하자 및 출하 품목 확대, 제휴푸드 입점, 명절 선물 세트 출시, 신선 농산물 출하 확대 등 소비

자의 건강한 식탁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영양 은하수 막걸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 전통적인 발효 기술을 접목했다. 프리미엄 전통주로 탄생했다. 영양 100년 양조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는 은하수 6도와 은하수 8도 두 종류로 즐길 수 있다. 지역에서는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영양 막걸리 홍보 촉진에 따라 판매처 중추음으로 막걸리 캐리어를 제작·출시, 직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설 명절을 맞아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 영양 막걸리와 함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 막걸리는 100년 양조장의 명맥을 잇는 중요한 지역 전통주로 재탄생하여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끌어내고 있다. 관내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소중한 영양 막걸리와 함께 설 명절을 뜻깊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출하자와 소비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한 몫 한다. 권윤동 기자

청송군, 떡국 나눔 행사 온누리 퍼져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동참 따뜻한 청송군 만들기 적극지원



청송군은 설 명절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가 상종가다.청송에는 온기 나눔 범국민 계몽운동이 한창이다. 행사는 청송군세마을회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136개리 마을별

중·장년 취약계층 2가구씩 총 272가구를 대상으로 설맞이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떡국 고명, 한우사골, 떡이 담긴 밀키트를 포장,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했다. 떡은 지난해 12월 19일 한국쌀전업농청송군연합회(회장 남희수)에서 기부한 쌀로 만들어 더욱 뜻깊었다. (주)동진통신(前 재구청송군향우회장 김영섭)은 1000만원 상당의 폐지복합 포장육을 후원해 온기 나눔 릴레이에 따뜻한 마음을 보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온기 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자원봉사단체와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랑의 온기가 지역 곳곳에 퍼져 따뜻한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박남서, 아이 부모 모두 행복한 영주시 건설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인상 양육부담경감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아동 정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동친화적 취미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6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

이집을 운영한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가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 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된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8000 원에서 9000 원으로 인상된다. 전상기 기자

김광열, 설명절 화재 예방 최선 다해라

화재 취약시설 합동점검 사고없는 설명절 만들기

영덕군은 지난 30일 공동주택 2곳, 요양시설 1곳에 합동점검을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후 공동주택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 사고없는 설명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점검에는 시설 소관 부서, 영덕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조여은 기자

울릉도 2024 ULLEUNG-DO SNOW FESTIVAL

나리분지 일원

눈 축제



1-2월 상시 프로그램	튜브 눈썰매, 노지 캠핑·차박, 스노우 래프팅, 눈꽃 소원 나무
--------------	-------------------------------------

2월 1-3일 프로그램	눈사람 만들기 대회, 크로스컨트리 스키, 울릉도 겨울 사진전, 얼음 조각 전시, 자동차 극장, 먹거리 장터, 플리마켓
--------------	---

